

증인(證人)의 자격

여호수아 2장

이 명 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행 1:8)

1. 체험(體驗)



람이 어떠한 일에 증인이 되려면 친히 목격하고, 친히 들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일 1:1) 하였다. 이만하면 증인로서의 자격이 넉넉하다 하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다. 만일 그 복음에 대하여 실제로 체험한 바가 없다면 결코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가령 우리가 금강산

에 대하여 증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기행문 같은 기록을 보고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그렇게 유력하다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금강산을 실지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출발하여 그 여정이라든 지 그 경치를 증거할 때에 능히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함에 도,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증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속담에 말보다 증거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그저

성경을 설명하는 것보다, 신학을 말하는 것보다, 그 심령이 복음의 능력으로 받은바 은혜의 체험에 대하여 증거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가 명백한 회개의 경험이 있다면 그대로 증거할 것이다. 중생의 체험이 있다면, 그대로 증거할 것이요,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대로 증거할 것이요,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그대로 증거할 것이다. 확실한 성결의 체험이 있다면 철저히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란 심히 어렵고 어색한 일이지만, 사실을 말할 진대, 어려울 것 없고 흥미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한 문자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체험으로 화하고 이 체험이 다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증거이다. 증거가 철저히 못하고 불확실한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억지로 꾸며서 말하고자 하려는데서 억측(臆測), 오해(誤解), 망상(妄想), 이단(異端), 사설(邪說)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소위 고등

비평(高等批評), 신 신학(新神學)이라는 것이, 종교에 대하여 모두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성경에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하였다. "듣지 못한 주를 어찌 믿으리요"(롬 10:14)함과 같다.

II. 실행(實行)

둘째로, 증인의 자격은 실행이다.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만일 실행이 없다면, 그 증거까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약을 파는 상인이 대머리라도 이 약을 바르면 머리털이 난다는 약을 파는데, 어떤 대머리 된 사람이 그 약을 사려고 약을 파는 사람에게 묻기를 "이 약을 바르면 틀림없이 머리털이 나느냐" 물을 때에 약장사는 "틀림없다"하였다. 그런데 약을 사려던 사람이 그 약장사를 바라보니 그 역시 대머리라, 그 때에 약을 되돌려 주며 약을 사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말하기를 "만일 이 약을 사다가 발라서 틀림 없이 머리에 털이 난다면 당신의 머리가 지금까지 대머리대로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이 약을 사다가 바르다 해도 내 머리에 털이 날 것 같지가 않소"하고 약을 사지 않았다

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라, 중생하라, 성결하라, 재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회개의 합당한 열매와 중생이나 성결함에 합당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의 증거는 다 거짓이 되고 만다. 그런즉 우리의 실행은 일상생활 곧 의복, 음식, 언행에 나타남으로, 증거는 하되 만일 실행이 없으면 일종에 위선자가 되고, 실행하되 증거가 없으면 병어리에 불과하다. 자주 우리는 "어느 목사 어느 교인은 의복이 너무 사치하다, 음식에 절제가 없다, 말을 삼가지 않는다, 행동이 불미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려면 이런 삼들을 주의하여, 듣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왕(女王)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보고 듣고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와서 그 실지를 보니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것은 반도 못 되도다...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왕상 10:1~) 하였다. 증거는 실행으로 더욱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마 5:16, 딤후전 4:16).

Ⅲ. 순교의 정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상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지 말라. 만일 받을 것이 있다면 능욕(凌辱)과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우리의 증거는 의(義)지만 저희의 것은 불의(不義)한 것이요, 우리의 증거는 진리이지만 저희는 다 허위(虛偽)이기 때문이다.

보라 어찌하여 아벨이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곧 은혜를 증거하다가 충돌이 되어 순교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실지(實地)로 받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대로 증거한다면 순교치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선지자 중 박해를 당치 아니 한 자가 없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그러하였고, 예레미야가 그러하였고, 스가리아가 그러하였고,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고, 스테반이 그러하였고, 사도바울이 그러하였다. 이외에도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분들이 그러했다. 주 예수께서 분명히 참 증인은 세상에서 능욕과 핍박을 받을 것을 예

언하셨다(마 10 : 17).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열렬한 진리의 증거는 희박하고, 오직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세속적인 이야기만이 흘러남은, 다름이 아니라 핍박을 두려워하는 정신에서 비롯됨이라 할 것이다. 남의 영혼에 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증인들이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더불어 죽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하지 못하면, 남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 주님 앞에서 세게 될 때에 책망을 면치 못 할 것이다.

IV. 권능(權能)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권능이다. 총(銃)도 있고 화약(火藥)도 있지만 만일에 불이 없다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증인에게 참된 경험과 실행과 순교할 만한 정신과 각오가 있다 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권능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

회는 나의 증인이 되라.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눅 24 : 47~49).

권능이라 함은 곧 성령이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는 "힘으로 되지 아니 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 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스가랴 4 : 6) 말씀하셨음과 같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 증거했어도 아무런 결과를 거둔 것이 없었으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받아 증거할 때에 3천명의 회개하는 자가 일어나게 됨이 그 한 실증(實證)이다. 그런즉 참된 권능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굳은 암석(岩石)일지라도 다이나마이트의 세력으로 능히 깨뜨리는 것과 같이, 성령의 권능은 강박한 죄인의 마음을 능히 깨뜨려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권능이다.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라.

<본 설교는 이명직 설교집 제1집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현대적 어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